

## 9/7(월) 시편 묵상 16

### 시편 80:4-19

오늘 말씀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다시 돌이키사 그의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시인의 간절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분노

시인은 4절에서 이스라엘의 기도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4절의 기도는 믿음없이 행하는 하나의 신앙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기도하는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순종보다 신앙의 행위만 있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했던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무엘상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없이 행하는 모든 영적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후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들의 길고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5-6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대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름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 포도나무의 비유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8절, 14절)와 포도원(12절)으로,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로 비유하며 둘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십니다.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 받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이 심겨질 곳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뿌리를 깊이 심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신 분이십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땅 밑으로는 뿌리가 깊이 자라고 위로는 가지가 온 땅에 미치게 될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8-11,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와 강’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영토 즉, 서쪽의 지중해와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0절의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이며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강성한 황금시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의 부귀와 영화를 백향목으로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즉, 시인은 과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돌봄을 받았던 영광스러운 자들, 하나님의 백향목과 같은 ‘포도나무요 포도원’이었던 점을 먼저 회상합니다. 그러나 12절에서부터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모든 이들과 멧돼지 그리고 들짐승들에 의해 무너지고 수탈을 당합니다. (12-13,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 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시인은 16절에서 주의 면책으로 임함이라고 말씀합니다(16절, “**그것이 불타고 베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 없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분노 가운데 이스라엘을 진멸하셨습니다.(4절). 이에 시인은 이스라엘이 비록 심판을 당했지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17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영적 다짐과 함께 서원의 고백으로 그의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18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포도나무와 포도원의 비유는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5장, 예레미야 20장, 호세아 10장 그리고 신약의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 5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포도밭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것을 지극 정성으로 돌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게 되었습니다(사 5:2). 사 5: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는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한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비유로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로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15:4-5).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분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 지역에 불어 닥친 토네이도로 인해 큰 나무들이 뿌리 채 뽑히고 많은 가지들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그 꺾인 나무 가지들의 -한 때 큰 나무의 양분을 먹고 푸르렀던 잎들이- 바삭 말라버려 앙상한 가지와 함께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여기 저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분이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 분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 기도제목

1.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기관으로 IRIS(난민사역), OMSC, KGMLF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